

osf 합류

락사나 osf글로벌 헬스 라이프 보건인권 의약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와서 희망 함 의약품 접근권 향상 희망함. 앞으로 2년동안

- 2월에 한국에 옴. osf 동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이 2년전에 시작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원 2월에 한국 osf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에 지원하고 있음.
한국의 교포에 있고,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고,
한국사무소 osf 담당 건강권 이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도 됩니다.

소송육 한국청소년 감염인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있고,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에 활동하고 있음.

에이즈 활동가 같이 옴. 저희는

hiv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윤 가브리엘

ipleft 권미란.

hiv 인권활동가 위민유니세프 성과 재생산 나영정

- 나는 글로벌 볼드 리퍼드 ○의약품 접근권, 10월에 와서 osf 의약품 접근성 말했고, 글로벌 보드에 말해서 허가를 받음. 우리는 포커스 온 영 보이스 비커밍 재단에서 후원하는 좋은 정책 늘리고, 나쁜 정책을 줄이는 방식

- 무역협정을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환자 의견을 높이고, 청년들의 의약품 접근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hiv 지원함. 언제

- 회의의 목적은 hiv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관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도울 수 있도록 몇몇 그룹

만나는 단체를 약하고 계신가요? 코리안 네임.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과 대안

신민건강연구소

권혜영 교수

탐사보도 기자 뉴스타파

시사인 김영미?

고대 연대 보건정책 학생들 약대 학생들

- 함께 잠재하여

- 어떻게 먼저

소수자협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듣기로는 무얼 얘기하거나 해줄건지를 이야기 해주면 하고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없다. 오벌 프레임은 이월에드버캐시 키핑 매디슨 코리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슈프

장기적인 무역협정 등등..

애드보커시

원 유 무엇을 원하는 지 큰 그림은

- 권: 작년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뉴을 서포트해주는게 돈을 주는 것인줄을 몰랐음. 그 방식을 알지 못해서...

- 이에 대해 존중함. 의논 하시기 전에

- 의논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협력은 잘 모르지만 각각의 단체들이 하고 싶은 생각임. 협력을 하면

hrm 대표를 받아서 의논하실 때 문서작업을 줄이고, 행정비를 줄이는 방식이 필요함.

- 멤버들과 나눠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질문: hiv 의약품 접근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난민, 이주노동자의 접근권... 이주정책, 신분 제도와의 문제 들이 얹혀 있음. 이를 의약품 접근권 이슈에 포함될 수 있을까?

--> 답: 예! 일부로 다른다면 문제없음.

질문: 기간이나 금액을 어떻게 보는게 좋을지?

--> 답: 특별한 계획은 20개월...., 2020년 12월까지... 그 이후의 지원은 의논을 해야함.

모든 그룹... 이야기 하기 어려움.. 개별적으로 할지 특별펀딩 60만불...

질문: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재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싶음. 좋은 정책이 키우고, 나쁜정책은 없앰(젊은 운동가를 지원) 트레이닝 프로그램까지 지원이 폭넓음을 느끼고 있음. hiv의 감염율이 오르고 있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하는, msm hiv알리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리펀드는

--> 다른 나라: 치료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있음. 치료 리턴싱 과정에서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음. 교육을 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음. 정책이 학생들에게 맞닿아 있는지 애드보커시

--> 의약품 접근 권 성소수자 동아시아 지역프로그램 일본, 대만, 한국의 여성 성소수자 인권.... 일반적 프로젝트 다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디지털 캠페인... 젊은 남성 청년 학생들이 그 문제를 찾아서 디지털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이라 됨.

질문: 작년에 만나고, 가셔서 한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지원을 받아옴. 이를 판단한 이유가 궁금.

--> 1. 한국은 의약품 통제를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이 있음. 국가가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 규제를 완화하면 약가는 다시 오를 것임. 한국 정부는 공적자금을 제약 R&D를 투자하기 바란다고 계획중임. 올 한해 25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프리카나 남미에 수출한다고?? 무역 RCEP에서 지재권 강화를 한국이 주장하고 있음. 한국이 지재권 강화를 노력하면서 아프리카 약을 판다고?? 이해가 안됨.

한국의 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미국과 유럽과 달리 나가길 바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약들을 제공하길 바람.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아시아에서 나오지 않고 있음. 한국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음.

** 고어사의 전략... 한국의 가격을 다른 곳에 영향을 많이 미침. 리스트 가격과 실제가격을 다르게 해서 전략... 하지만 글로벌 측면에서 좋은 방식은 아님. 중진국의 위치에서... 의약품 생산 하지만 의약품 접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한국 정부가 신약개발에 대한 드라이브... 어떻게 지원??

** 신종전염병의 문제.. 동남아에서 유입됨.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뎅기열.. 치사율이 높지 않지만, 치료제나 백신은 없음. 저개발 국가와 우리나라의 환경 필요.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sf가 한국에 고마운 결정임.

** 보건 안보에 관한 연락. 국정원 내에 보건안보 영역... 리밸렉 시니어 레벨 고민할 수 있음.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의약품의 개발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게끔. 전략적으로 타겟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생산에 관심. 북한을 위해서라도...

- 전염병위기에서 문제 느낌... 1960년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문제에 대해....

질문: 정부 미국 모델로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정부가 갈 수 있도록...

성과재생산 포럼에서 산부인과 의사

2015년부터 시작함. 한국의 여성들 성과 재생산 운동이 이슈화 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연대체 모임에서 단체로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우리가 하려는 것은 포괄적인 성교육, 피임교육, 성건강 정보, 피임약 접근, 약물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할 예정임. 장기적으로 상담교육까지

- 2020년 제도적 공백기간에 노력하고자함.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음. 입법투쟁을 같이 하면서 접근권을 향상시킬 길을 모색하고자 함.

--> 어메이징 스텝. 한국

--> osf 여성인권 프로젝트 전략을 세우는 중에 있음. 동아시아 중점 osf가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것임. 성소수자 인권... 부담감을 있고, 국가가 외면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음. 7,8 월부터 그때 어플라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임.

--> 뉴욕에 베이스의 낙태에 관한 운동 진행하고 있음. 그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음.

큰재단 재편성.. 재정지원요구를

한국 —이사 한국 의사들이 접근권에

미국

- 바이오 시밀러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글리벡 이슈, 건강불평등 필수의약품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음.

의약품 에드보커시... 한국의 운동을 서포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 오늘 아침에 받은 의약품 접근성 모임,,, 정책 지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느 것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단체들 비공식 협력... 대화를 모여서 다른나라에서 약사그룹 진보적이지 않아서... 진보적인 애드보커시... 중요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진보적인 약사들이 리더로서.. 민변...

첨단바이오 의약품 이 각광을 받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돈이 왔다갔다. 정부도 R&D 지원과 약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환자들도 둘뜬 기대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약이 정말 좋은 약인지, 정말 공익적인 연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투자와 그들이 마련한 아이디어들이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만약 더 어플라이 세부적으로 리솔스

이해한 바로는 회원들과 지원 결정,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지원 할 것인지.. 가능한 빨리 지원!! 나느 보낸다. 다른 만나는 제약회사 템플릿 함께 제안하는 방법이 나을 것으로 보임. 최대한 빨리 펀딩을 드리고 싶음. 빠르게 즉시....

** 헬스 프로그램에 대한 뉴욕에 있음. 종로에 있는 동아시아 사무실은 헬스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4월 12일 락사나 osf 보건인권 의약품 담당자 미팅

1. 방문 목적은?

- 한국에 작년 10월에 이어 이번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이 의약품접근권이라는 큰 범위에서 좋은 정책을 늘리고, 나쁜정책을 줄이는 캠페인(연구?)과 환자의 의견을 높이는 캠페인, 어린 활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2. 기간이나 금액은?

- 특별한 계획은 앞으로 20개월 가량이다. 2020년 12월 까지 지원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지원할지, 연대체에 지원할지는 정하면 될것이며, 특별펀딩 금액은 60만불이다.

3. 다른나라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 한가지의 특정 방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희망한다. 디지털 캠페인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진보적인 애드보커시를 가지고 성소수자나 hiv문제에 대해서 치료교육 과정을 포함시

켜서 교육을 하는 자료를 만들고, 정책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방식도 있고, 젊은 남성 청년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디지털 캠페인을 만들고, 교육하는 지원을 한 적도 있다. 우리는 성과들을 생산해서 이걸 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4. 작년에 방문한 이후로, 본사에 가서 한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왔다. 한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한국은 의약품 통제를 전세계에서도 우수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가 이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는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제약 R&D를 투자한다고 알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아프리카나 남미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RCEP협정에서 지재권 강화를 한국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과 다른 길을 가길 바라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약들을 제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으며, 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